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전·의경 포교를 위해 계급·나이를 초월해 '합장인사하기' 운동을 벌이는 모습.

### 일터불심, 어린이·청소년·군경 포교에 앞장

# 눈높이 맞추면 모두 범우 신행과 포교 둘 아니다

## “계층 포교로 결속력 강화·신심배가… 보람도 커요”

일터불심의 포교 열정이 뜨겁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군·경, 교도소 등의 '계층포교'에 쏟아 붓는 신심이 대단하다. 바쁜 직장생활에도 쫓겨 신행 활동을 하는 직장불자들이 계층포교에 들어서는 공은 보살정신에 닿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층포교의 나선 일터 불자회, 어떻게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씨를 뿌려야 불교가 '썩썩'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김진관, 이하 산악인연합회)는 오는 10월 30일 특별한 등산대회를 갖는다. 유치원, 초·중·고생, 대학생 2백여 명을 초청, 서울 아차산을 오르는 '제1회 청소년 초청 환경 등산 대회'가 바로 그것. 산 정상에서 퍽퍽 소리를 청소년들에게 들려주고,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싶어서 마련한 행사다.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했다. 야생화초 공부부터 환경보호활동, 여기에 사찰체험에 이르기까지. '놀면서 불교를 즐기는' 등반 입장을 잡았다.

산악인연합회가 이런 대회를 왜 기획했을까? 차세대 불교 주역을 키우고, 한국불교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다. '어린이-중고생-대학생-청년'으로 순환되는 인적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한 이유다.

"직능단체의 특성을 살린 청소년 포교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청소년 초청 등산대회였어요. 청소년들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사찰문화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불교도 물이 맑아 스며들 듯이 자연스럽게 뿔뿔이 들어갈 거라 확신해요."

산악인연합회 김대현 사무총장이 이번 대회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89년 창립한 포항교사불자회(회장 박기백)도 청소년 포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기로 유명하다. 2003년 11월, 불자교사 80여 명이 모여 포항 죽림사에서 청소년문화교실을 열었다. 월 1회 문화제 및 불교이론 강좌, 현장 답사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불교와 문화제'에 대한 애정을 키워줬다. 고민과 진로상담 활동도 빠지지 않고 했다. 문화교실을 친근한 쉼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 불자회 홈페이지(user.chollianet/~ids900/pbt)에 사 이버 청소년 신행상담, 불교공부방도 개설했다.

포항교사불자회가 이렇게 청소년 포교에 나선 이유는 간단했다. '불자교사의 불심은 청소년의 신심과 비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늘 수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회원들이 일일이 회비를 거둬 청소년들과 매월 불교유익자 답사를 떠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매년 답사를 떠날 때마다 행사 경비 총당 문제로 골머리를 썩었죠. 중간에 그만 들까 회원들의

고민은 날로 커가지만 됐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처럼, 청소년 포교는 불자교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불자회장 박기백 교사(54·묘원)는 불자교사에게 있어 청소년 포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 군인·경찰과 인연만들기

지난 90년 창립한 대한불자기수회(회장 김활선). 그간 40여 회원들은 군 포교 현장에서 신심을 불태웠다. 군부대 방문을 위해 자기 공연 일정에 바빠가며 고집스레 불자 군 장병들을 찾아 갔다. 그러다보니 현재까지 위문 공연만 7백여 회가 넘는다. 오로지 청년 불자의 불심을 북돋우기 위한 노력뿐이었다.

어려움도 있었다. 행사 경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불자회 회원들이 내놓는 '주머니 돈'을 언제나 부족했다. 지역 사찰과 불교단체의 도움을 받았지만, 힘은 들었다. 그래도 군 포교 열정은 이어갔다.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을 아예 '군법당 찾아가는 날'로 정했다. 지난 1990년 창립이후, 육군 1사단과 3사단 신병교육대, 1군단 포병대, 군 법당 등을 방문, '노래하는 음성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아끼없이 폈어냈다.

"불자 군장병들은 한국불교를 책임질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난달이었던가요? 어떤 직장인이 인사를 하더군요. '군대 시절, 법당에서 들었던 불자기수회의 찬불가가 지금까지도 머리에 생생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더라고요. 지금은 일터에 불자회를 만들려고 회원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국방연구원·국방품질관리소 흥륜법우회(회장 이중

인)의 군 포교 원력도 대단하다. 국방연구와 군수물자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 업무인 이들 불자회원들의 포교활동은 고스란히 군 포교 활성화로 이어진다. 83년 창립한 이후, 줄곧 군내 사찰을 중심으로 불자 군장병과 법음을 나눠왔다. 1년에 봄·가을로 나눠 전국의 군 법당을 찾아 순례법회를 병행했다. 이런 군 법당과 지속적인 만남은 불자 군장병들의 신행고민을 해결해주는 기회가 됐다.

이의 서울 구로구청 불자회(회장 조정호)도 5년 전부터 인천 19사단의 불자 군장병을 찾고 있다. 또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는 2002년 포교사 자격을 갖춘 회원을 당연직 상임포교사로 위촉, 전·의경 포교활동을 받고 있다.

#### 지장보살 원력으로 '교화'를 실천한다

교도소 포교의 '메데랑'은 단연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정). 연합회원들은 업무 그 자체가 '교화'라고 말한다. 전국 48개 교정기관 중 43곳의 불자회가 경비교도대, 재소자 상담 등에 활발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동교도소 불심회의 경우, 불우한 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구구절절 딱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재소자들이 사연을 풀어놓을 때마다 굵은 눈물을 흘리지요. 참회는 간절해요. 죄는 지었지만 뒤우치는 모습을 보면, 불자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안양교도소 불심회 김성배 회장은 불자 재소자 상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든 교정인연합회 전법팀(우영근·군산교도소 보안계장)은 포교사 자격을 백분 살려, 재소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포항교사불자회가 청소년 포교열정을 담은 '청소년 문화교실'. 사진은 포항지역 청소년들이 2003년 11월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제 답사에서 박기백 불자회장에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우리불자회는요

### 삼호중공업 불자회

한국경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자부심으로 우리 불자회원들은 굵은 땀방울을 근무현장에서 흘렸습니다. 대형 선박과 철구조물 생산 활동은 산업일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불자회는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불자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입사한 90여 명의 일터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터에서 실천하

회와 갖는 행사들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해군지역방위사령부 불자회와 3년째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군법당 불자장병들과 법회도 함께 병행하고, 위문품을 전하면서 법우애를 뜨겁게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해 2월에는 대문사 대웅전에서 '제1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보선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합동수계식도 갖고, 참불자로 살기 위해 서원을 했었지요. 이 때 우리 불자회원들이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



사진은 삼호중공업 불자회원들이 올 9월 22일 전남 축성암에서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는 모습.

### 안보면 보고싶고 볼수록 즐거운 도반들

### 가정·회사·지역에서 '중공업 불심' 과시

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한 손에는 불경'이란 신행모토를 내걸고 밤낮으로 일과 수행의 두 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창립은 2001년 4월 사택 단지 내 축성암에서 했습니다. 대문사 주지 몽산 스님을 비롯해 마사 스님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성황리에 창립 법회를 병행했지요. 이후 우리 불자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씩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

나도 불자로 살고, 항상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 정신으로 직장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회는 앞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아무리 불법을 잘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몸

으로 부딪으며 보살행을 이어가고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1법회 1자녀 데려오기' 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도 업무적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원만한 직장생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즐거운 도반'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인근 군부대 불자

회로 이어가고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1법회 1자녀 데려오기' 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내에서도 업무적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원만한 직장생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즐거운 도반'이 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인근 군부대 불자

정동욱 회장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근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림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 ◆우리절개산대제

오는 10월 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법회를 병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근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